

KIA 퓨처스 합평 캠프 주장 오선우

“한 번은 기회가 온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
장점인 장타 꼭 보여줄 것”

KIA 타이거즈 외야수 오선우가 야구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를 악물었다.

KIA는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스프링캠프를 꾸리고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애리조나에 쏠려있지만 합평도 뜨겁다.

1일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퓨처스 선수단의 캠프가 시작되면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들은 아쉬운 출발이 아닌 화려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작했다.

남다른 각오로 캠프를 시작한 선수들. 특히 오선우에 시선이 간다. 그는 올 시즌 퓨처스 주장을 맡아 캠프를 이끌고 있다.

오선우는 “마무리캠프 때 좋게 봐주셨다. ‘주장해볼 생각 없어?’가 아니라 ‘주장이야’라고 통보를 받았다(웃음). 올해 5년 차인데 작년에 부상당하고 이미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역할을 맡겨주신 것 같다”며 “생각도 많고 설레기도 한다. 행동으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훈련할 때 전체를 보게 되더라. 표정 안 좋은 선수 있으면 가서 말 걸어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겠다”고 주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주장은 물론 외야수 오선우로서도 이번 시즌은 중요하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오선우는 겉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화끈한 방망이가 장점인 오선우는 시원한 외모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남다른 외모로 야구팬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오선우이지만 이번 시즌을 위해 몸을 불렀다.

오선우는 “외형은 포기했다. 외형은 필요 없다(웃음). 정말 다 포기했다. 이제는 진짜 보여줄 때가. 보여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오했다”고 말했다.

변화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장점인 장타 극대화를 위해서다.

그는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한 것 같았다. 조금만 잘 되면 좋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변화를 줬다. 지난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고 마음먹었고, 올해도 후회 없이 내 야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왔다”며 “약점을 보완하려다 보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결국은 내 야구를 안 하고 있었다. 장타를 마음 먹었다. 1군 경기할 한 경기라도 될 수 있으면 2군에서 어떻게



오선우

든 3배는 잘해야 한다. 장타와 OPS를 목표로 삼 많이 짜였다. 체지방 늘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애리조나가 아닌 합평에서 시작하게 됐지만 오선우는 천천히 때를 노릴 생각이다.

오선우는 “솔직히 2차 캠프 생각은 뒤로 빼냈다. 올해 기회가 두 번은 안 올 것 같다. 한 번은 올 것 같아서 그 한 번을 안 놓치기 위해 준비를 더 단단히 할 생각이다. 자신감이 들도록 훈련하는 게 내 목표다”며 “물론 2차 캠프를 가면 좋겠지만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제 나도 그럴 일 지하고 있으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를 잡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꿨다. 오선우는 “원래 아침을 안 먹었는데 아침을 한 번도 안 거르려고 계획을 세웠다. 침구 정리를 해야 하루 시작할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그것부터 하면 훈련이나 그런 것은 더 부지런하게 할 것이다”며 “올해 자신 있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NC로 가신 송지만 코치님 해주신 말씀이

있다. 4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치님이 ‘빨리 깨달은 것이다. 이제 너의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잘할 수 있다. 지켜봐 주라’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별이 빛나는 K리그’ 40주년 기념 브랜딩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K리그 40주년 기념 브랜딩’을 발표했다.

2일 발표된 브랜딩은 K리그 엠블럼의 ‘슈팅스타(별)’에서 착안해 제작됐다. 40년간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진 수많은 스타들의 이야기가 별처럼 K리그를 빛낸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별을 상징하는 골드 컬러를 사용해 대한민국 최상위 축구리그로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했다.

K리그1과 K리그2 각각의 엠블럼은 각 리그의 고유 색상으로 제작됐다. 이번 브랜딩은 40주년인 올 시즌 ‘하나원큐 K리그 2023’ 대회 로고와 공식 명칭 표기, 유니폼 패치, 공인구, 각종 제작물, 인트로 영상 등에 반영된다.

한편 이번 브랜딩 제작은 K리그 공식 비디오 게임 파트너인 글로벌 게임 기업 ‘일렉트로닉 아트스(Electronic Arts)’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디



자인은 울산현대, 전북현대, 대한축구협회, 프랑스 파리생제르맹 등과 작업한 스포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버더피치’가 맡았다.

새로운 브랜딩을 제작한 연맹은 올 시즌 중 K리그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와 팬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콘테 토트넘 감독, 담낭염 수술로 당분간 결장

손흥민(31)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안토니오 콘테(54) 감독이 담낭염 수술을 받아 당분간 팀을 이끌 수 없게 됐다.

2일 토트넘 구단 홈페이지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현지시간 1일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다. 콘테 감독은 최근 심각한 복통을 느꼈는데, 병원에서 담낭염 진단을 받아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다.

콘테는 수술을 마친 뒤 인스타그램에 “사랑스러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술은 잘 마쳤다. 이미 기분이 나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빨리 그라운드

에서 팀을 지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콘테 감독이 복귀하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치러지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EPL) 홈 경기부터 당분간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토트넘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EPL 5위 토트넘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16강까지 생존해 있어 경기 일정이 빽빽하다. 맨시티전을 포함해 EPL 2경기를 연달아 소화하고, 15일 AC밀란(이탈리아)을 상대로 UCL 16강 1차전을 치러야 한다. /연합뉴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일 맨유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치열한 공중볼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얼마 만이냐”... 맨유, 우승 기회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라바오컵서 2-0 노팅엄 완파 26일 뉴캐슬과 결승 대결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노팅엄 포리스트를 완파하고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에 올랐다.

맨유는 2일(한국시간) 맨유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노팅엄에 2-0으로 이겼다.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한 맨유는 이로써 1:2 차전 합계 5-0으로 크게 앞서며 결승에 진출했다.

맨유는 사우샘프턴을 제압하고 결승에 먼저 진출한 뉴캐슬과 오는 26일게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툰다.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된 뒤 강호로 거듭나고 있는 구단이다.

맨유는 리그컵에서 통산 5차례 우승했다. 맨유가 뉴캐슬과 주요 대회 결승전에서 격돌한 것은 24년 전인 1999년 FA컵이 마지막인데, 이때는 맨유가 뉴캐슬을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맨유가 이번 결승에서도 뉴캐슬을 제압하면 맨유가 감독 체제가 들어선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맨유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물러난 201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2016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2016-2017시즌 리그컵, 두 차례뿐이다.

맨유는 또 이날 노팅엄전 승리로 퍼거슨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홈 12연승을 달렸다.

퍼거슨 감독 시대 이후 계속해서 침체하던 맨유가 맨유 감독 부임 뒤 제대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맨유는 현재 EPL 4위다. FA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는 16강에 올라있다.

특히 월드컵 후반기 뒤 공식전 10승 1무 1패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맨유는 이날 설 새 없이 노팅엄을 몰아쳤지만 좀처럼 골을 넣지 못했다.

맨유 감독의 교체카드가 통했다. 후반 17분과 18분에 걸쳐 마커스 래시퍼드, 제이슨 산초, 앙토니 마르시알을 잇달아 투입하자 골이 잇따라 터졌다.

후반 28분 래시퍼드의 슈팅이 수비를 맞고 흐르자 마르시알이 재차 슈팅해 선제골을 뽑았고, 3분 뒤에는 래시퍼드의 패스를 프레드가 마무리해 승리에 쾌거를 보였다.

맨유 감독은 경기 뒤 “좋은 선수들을 가진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매 경기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맨유다. 맨유 선수라면 맨유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타왕 디셈보 “이제 장타 욕심 버렸다”

LIV 골프 옮긴 뒤 성적 못 내 “신체와 장비의 한계 절감” 몸무게 10kg 줄고 손목 수술도

괴력의 장타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브라이슨 디셈보(미국·30)가 이제는 장타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셈보는 2일(한국시간) LIV 골프 홈페이지에 올린 근황 소개에서 더는 비거리를 늘리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발을 디딜 때는 크지 않은 체격에 평범한 비거리였던 디셈보는 몸집 불리기와 스윙 스피드를 극단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괴력의 장타자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다.

2021년에는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 323.7야드로 장타왕에 올랐다.

장타 전문 선수들이 겨루는 장타 대회에서도 2년 연속 출전하는 등 장타에 대한 열망이 어느 선수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손목 부상 이후 경기력이 하락했고 PGA투어를 등지고 LIV 골프로 옮긴 뒤에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디셈보는 이날 한껏 키웠던 몸집도 줄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여름 동안 몸무게도 10kg 가까이 줄었다.



브라이슨 디셈보

그는 “신체와 장비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디셈보는 “공학 기술로 스윙 스피드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다. 볼 스피드를 (시속) 185마일 이상 올리면 통제가 안 된다”라며 “볼 스피드 200마일로 때린 볼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리면 놀랄 일이고 절대 무기가 되겠지만, 그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장타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작년 4월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스윙 스피드를 높이려고 너무 심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생긴 부상이었다.

디셈보는 지난해 12월 상악동 저류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디셈보는 2일부터 다음 달 동안 열리는 아시아프로 골프투어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출전한다. /연합뉴스